

지난 여름 12명의 미국, 5명의 페루 젊은이들이 1주일 동안 페루 리마에서 첫 번째 국제 교류 만남을 가졌다. 이들은 서로의 삶과 문화를 익히고, 인종 차별, 성 차별 같은 사회 정의를 위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. 또한 마리아니스트로서 그들의 삶이 사회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토의하였다. 리마 주변의 수도원들을 방문하였고, 평신도 공동체의 상호 관심사를 나누며, 마리아니스트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야기하였다. 한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이 만남에 대해 말하였다. “저는 이 만남이 새로운 문화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,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지속적인 자극제가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.”